

법회안내

- 현호스님(법연사 회주)**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30분 연등기원법회. 26일~5월 2일 오전 10시 7일간 봉축기도법회. 28일 오후 2시 불멸 및 삼귀오계 수계법회. (02)733-5378
- 일운스님(불선사 주지)**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30분 보름법회.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관음재일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군인법회. (034)555-5974
- 성광스님(화계사 주지)**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일요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5일 오전 10시 보름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청년회법회. (02)902-2663
- 범추스님(청주종주사 주지)** 5월 2일 공군제 13579부대 전투비행단 군법당 초파일 전야제 법회. 22일 오전 9시 30분 청주교도소 직원재소자 합동법회. 27일 오후 6시 30분 거사법회. 매월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 청주과미다 학생법회. (0431)56-5585
- 심산스님(동도사 부산교원원장)** 21일 오후 7시 '올바른 신생활에 대하여' 주제 법회. 매월 음력 1일 오전 10시 초하루법회. 매월 음력 18일 오전 10시 지장재일법회. (051)816-2241

■ 법회안내를 원하는 사찰·단체는 법사 사진과 함께 보내 주시면 성실히 게재하겠습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분단극복하는 길 제시 정토포교원 통일 강좌

청년정토회(회장 박남규)가 우리의 분단현실을 보다 냉철하게 판단하고, 청년의 통일운동은 바른게 모색하는 장으로 법륜스님의 통일강좌를 준비했다.

'분단민족의 현실과 통일운동의 새로운 대안'이라는 주제로 인륜문명의 현실·분단민족의 과제·북녘동포의 실태·북한 동포들의 현황·통일운동의 현실·민족통일의 과제·청년운동의 대안 등 체계적인 강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2일~6월 3일까지 총재정토포교원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이 시대 청년분자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입각한 통일운동에 대한 해안과 삶의 지침을 제시할 것이다. (02)379-1650

사바세계 무명 밝히자 봉은사 가족등 만들어주기

번뇌와 무지로 가득찬 사바세계를 밝게 비추며 부처님의 공덕을 칭송하는 발원의 한 방법으로 오래전부터 밝혀온 등불. 온가족이 모여 대나무로 배대를 만들어 한지를 바른 등어 빛으로 그림을 그리고, 색지를



온가족이 모여 연등을 만들다보면 신심도 다지고 가족의 정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진은 사찰에서 등 제작하는 모습.

신행수첩

오래 불이는 멋스러운 우리의 등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봉은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족등 만들어 달기 행사를 28일~5월1일까지 법당에서 연다. 전통등연구회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를 통해 가족과 함께 전통등을 만들어 달면서 등공양의 참의미와 가족의 화합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02)511-6070

영어로 말하는 불교 화계사 국제선원 일요강좌

산비둘기들이 지저귀는 가운데 외국인 스님과 함께하는 일요일 오전의 영어수업은 상쾌하기 그지없다. 화계사 국제선원은 5개월전부터 이곳을 찾는 불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초·중·고급 수준을 따로 나누지 않고 수업을 하며, 매주 수업이 연결되는 것도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참가할 수 있다. 명행스님은 대작광전이나 큰방에서 영어로 법문을 하거나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보이시니 오직 가섭만이 웃었다'는 긴 글을 읽어 준다. 또 공도스님과 평행보살님은 객방 등에서 생활영어와 짧은 문장 등을 가르치고, 영어작문을 숙제로 내주기도 한다.

어린 학생부터 성인들까지 골고루 수강하는 이 수업은 시간내 영어로 진행되며, 학생들도 영어로만 대답해야 한다. 수강료도 따로 없다. (02)900-4326

실직고통 참선으로 푸세요 석왕사 단기출가 학교

한국불교대학교 총재 석왕사(주지 편백운)가 실직자를 위한 단기출가학교 수련회를 실시한다. IMF로 인한 실직자 및 일반 불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 단기출가수련회는 26일~5월 2

일까지 4박5일간 무설전에서 진행된다. 이 단기출가 수련회는 실직자들에게 일시적인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보고, 삶에 대한 새로운 좌표를 확립함으로써 닦쳐온 고통을 슬기롭게 이겨나가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석왕사는 경내에 30평크기의 공간을 마련, 실직자들의 원활한 대화와 정보교환을 도모하는 한편 속식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0361)54-6066

가족대화로 화목다져요 신도림복지관 부모대학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가족간의 대화방법과 올바른 부모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줄 강좌가 마련됐다. 신도림복지관은 5월 13일 오전 11시 부부간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실습할 계획. (02)631-9792

법동복지관은 5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부모대학을 열어 자녀의 성심리 및 성교육, 부모와 자녀의 효과적인 대화기법, IQ지수 향상 프로그램 등을 지도하게 된다. (042)633-1141

불자들을 위한 휴식공간 대불련 쉼터 '심내' 열려

대학생불교연합회총동문회(회장 임동주)가 편안하고 부담없는 만남과 힘의 열린공간 대불련 쉼터 '심내'를 열었다. 심내는 작은 자투리 시간, 도반과 함께 부담없는 담소가 필요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작지만 아담하고 정겨운 무료 공간이다. 조계사 인근이 종로구 견지동 110-40 청송빌딩 3층에 자리잡은 심내는 대불련 동문뿐 아니라 불교활동가, 종무원, 신도, 스님 등 사부대중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다. 교계신문, 잡지, 바둑과 장기, 간단한 음료, 전동차도 준비돼 있다고. (02)723-9811

행된다. 수강료는 10만원. (053)784-3669

△불교교양대학 신입생=금하선원(원장 정암)은 제8기 불교교양대학 교리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22일 입학식에 이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불교기초교리, 반야심경 등을 강의한다. (02)823-9135

△부음 △서동성기획실장(종단합 소비자보호회) 모친이 12일 속환으로 별세했다. (02)3452-7485



〈(주)넴프만 사장〉 김관두

나의 수행일기

어린시절 누나와 함께 산길을 가다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누나도 나도 도대체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막막했던 그때 눈을 감고 두손을 모으고 할머님이 평소 하시던 모습을 기억하며 관세음보살을 불렀다. 한참동안 관세음보살을 불렀을 때였다. 나도 모르게 한쪽 발이 풀썩을 해치고 쑥 뻗어 나갔고, 그 풀썩이로 작은 길 이 나 있었다. 얼마나 신기했는지, 어린시절의 그러한 경험으로 나는 일찍이 부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반야바라밀'을 생활속에서 늘 염하며 생활하고 있다.

도 다 힘들다. 넴프만도 마찬가지다. 지난 세월동안 석유파동도 겪고, 수많은 난관들을 겪어왔지만 요즘처럼 힘들기는 처음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마음을 비우고, 무조건 닦쳐온 상현에 열심히 노력하고 대처해야만 한다. 내 자신을 먼저 굳게 추스른 후 직원들에게 나는 말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비장한 각오로 모든 일에 임해야 한다고.

모든 세상이 그르려야겠지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결과속이 같은 정직성(신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신념이자 생활의 철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거래처에 대금을 치를 때 현금이 있으면 철저하게 현금으로 준다. 그럴때면 직원들이 내게 현금 그대로 은행에만 넣어 놔도 이자가 얼마데 어음을 주지 현금을 다 주냐고 책망한다. 내가 현금이 요긴하면

“바라밀정신으로 매진” 결과 속이 같은 정직·신용사업 신념

대기로 내리치는 것과 같은 함한 법문, 꾸밈이 없는 직설적인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반야바라밀의 도리를 깨닫기 위해 마음을 모았었다. 현암(玄巖)이라는 법명도 그때 광덕스님이 지어주신 것이다. 이후 불광사를 다니며 '바라밀정신으로 매진하라'는 광덕스님의 가르침을 수행의 좌표로 삼고 있다. 현재 불광사 논현법당 소속이지만 사업이 워낙 바쁘고, 요즘엔 IMF로 경황이 없어서 법회에 자주 참석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집에 부처님 사상을 모시고, 향을 피우고, 반야심경 독송과 108배를 하고 있다.



나는 일찍이 종로5가 광장시장에서 처음 속속장사를 하며 장사꾼으로서 사업가로서 잔뼈가 굵었다. 그러다 한 어른이 침구업을 해보라고 권유해 주셨고, 범야사라는 침구도매상을 열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제조·생산·판매를 시작, 넴프만을 운영한지 16년이 됐다. 요즘 같은 IMF시대에는 어떤 기업

남도 마찬가지다. 현금이 있으면서도 어음을 주는 기업관행은 바로 남의 이익을 뺏아오는 것과 같다는 생각으로 나는 늘 정직하게 양심에 걸맞게 사업을 운영해 나가고자 애써왔고,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잠시 한눈을 팔고 정신을 놓으면 삿된 길로 접어들게 되듯이, 사업도 마찬가지다. 중소 침구업체로서 살아남기 위해 동종업계에서 최고가 되기위해 끊임없는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해왔다. 그러한 결과로 지난해 1월에는 중소기업우수제품마크 인증서를 받는 등 어려운 가운데서도 종합침구업체로서 거듭나고 있다.

게시판

- △전통한복집=**'연지근지 우리 옷'(대표 이명선)이 종로구 인사동 동일빌딩 1층에 분점을 마련했다. (02)732-8552
- △동산교육회관개관=**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는 19일 오후 2시 용전갤러리 2층에 동산교육회관을 개관했다. (02)732-1206
- △기초교리=**조계사는 초심불자들을 위한 제2기 기초교리강좌를 마련했다. 3개월 과정으로

- 25일 개강. (02)720-1390
- △가정봉사원=**종리종합사회복지관은 노인 및 장애인에 위한 말벗이 되어주고, 도움을 줄 가정봉사원을 모집한다. (0551)31-8017
- △주부문화학교=**부천 석왕사는 사군자, 풍물, 수직 등 취미교실과 도예교실 발반사요법 등 부업교실 수강생을 모집한다. (032)663-7776
- △아동합참교실=**청담종합사회복지관은 아동합참교실 회원을 모집한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합참지도 및 문화공연관람을 한

- 다. 수시모집. (02)806-1375
- △중이집기 초급강사 자격반=**본동종합사회복지관은 초급지도자 자격증 대비교육 속성반으로 4개월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실시한다. (02)817-8052
- △산모도우미=**신도림복지관에서는 산간의 어려움을 겪는 산모를 도울 도우미를 파견해 준다. (02)631-9792
- △달반사건강요법=**동화사포교원 관오사 부설 불교사회교육원(원장 지도)은 제 7기 달반사건강요법 수강생을 모집한다. 24일부터 3개월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관오사에서 진행

- 된다. 수강료는 10만원. (053)784-3669
- △불교교양대학 신입생=**금하선원(원장 정암)은 제8기 불교교양대학 교리강좌 수강생을 모집한다. 22일 입학식에 이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불교기초교리, 반야심경 등을 강의한다. (02)823-9135
- △부음**
- △서동성기획실장(종단합 소비자보호회) 모친이 12일 속환으로 별세했다. (02)3452-7485**

매월 첫째 토요일은 '한복입는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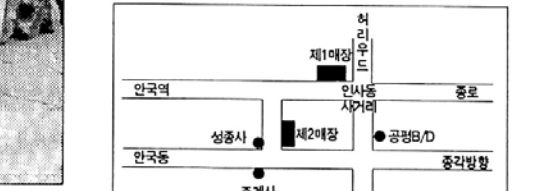
민족의 멋 우리의 옷 에 맥 생활한복



- 우리옷 "에 맥"의 제품 구성
- 수준 높은 천연 염색 실크 제품
 - 가벼운 소재와 전통미의 생활 한복 및 아동복
 - 각종 연회 예복 제작
 - 스님들의 간편복
 - 신도님들의 단체복, 기도복 제작
 - 기타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원하시는 대로 제작해 드립니다.

본 사: 조계종 포교원 앞 위치
직 영 매 장: 인사동 4거리 위치
전국대리점모집: 佛子로서 본찰 주지 스님 추천서 요
※ 판매책임자 구함(여 30세 이상 불가)

본 사: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9(원당BD 202호)
(株)에 맥 에퍼렐
전 화: 737-0804~6 팩스: 723-4599
제1매장: 서울 종로구 인사동 1-4번지 ☎ (02)723-4600
제2매장: 서울 종로구 견지동 68-1 ☎ (02)738-3939



다중용 범요집 및 괘불



- 〈 괘 불 〉
- 규 격: 높이 7자, 폭 4자 5치
 - 징: 방수안벽, 조립간편
 - 가 격: 90만원(괘불대 포함)

▶ 패도내용: 범법식순과 찬불가, 기초교리
감 수: 암도 큰스님

佛敎布敎資料院
서울特別市 龍山區 厚岩洞 195-6
電 話: (02)772-9052, FAX: (02)755-0479
(02)672-1333, 723-4599